

디지털 저작권 지문

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주제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혐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불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어...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야 해?

그럼 그 두개가 반대되는거야?

아 뒷부분에 공정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일부 제한하는 거라고 써져 있구나!

저작권 제한 규정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시점에서 끝난 얘기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어... 어? 왜? 공정 이용이 저작권 제한 아냐?

디지털 환경이영 저작권 침해가 잘 일어나니까 저작권 보호가 장애에 부딪혀야 하는거 아냐?

음... 디지털 환경 → 개작 쉬움 → 그게 그거!

원 창작물 or 이차적 저작물인지 모름 → 불법이야 합법이야?

→ 몰라 그냥 처벌하자

그래서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공정 이용도 하기 어렵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아하 공정 이용 범위를 넓혔구나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범위를 정해봐도 아직 애매한가?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라네

기준 읽어보고 가자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협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협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 자유 이용 협약제도?

저작권 포기야? 아니면 제한?

무료로 개방? 아니 일정한 이용 협약 조건을 표시하는 걸 보니 공정 이용의 범주를 저작권자가 정해주는 제도구나!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아! 저작권 존중하는구나!

애너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인가 왜?

..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 이용이 활성화되면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단 그 범주 외로 사용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군

한편 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치 저작권의 공정 이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저작권자한테 손해지니 대가는 높으니까 그냥 돈 내라 이말? 짚든 공정 이용 범위 확대는 권리침해라는 거군